

지구촌 양계뉴스

일본

폐계를 고급닭으로 속여 판매

식품 안전에 민감한 일본에서 '식품 위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전통 있는 지방 특산식품의 소비기한을 수 개월 늘려 표시하거나 표시된 고기의 종류를 바꿔서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오사카 인근 미에(三重)현의 특산 떡인 '아카후쿠 모찌(赤福)'를 생산하고 있는 아카후쿠사의 경우 냉동 보관하거나 팔다 남은 떡을 다시 포장해 제조일자를 위조한 사실이 지난주 발각됐다. 1707년에 창업해 떡 하나만을 300년 동안 팔아 온 유명 업체다. 이 회사는 처음엔 제조일자 위조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하며 "300년간의 긍지와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돼 할 말이 없다"며 휴업에 들어갔다.

아키타(秋田)현의 특산품인 '히나이(比内) 닭고기'를 생산하는 히나이도리사는 최근 싸구려 '폐계(廢鷄 : 더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닭)'를 고급 '히나이 닭'인 것처럼 속여 훈제고기를 팔아 온 사실이 지난 10월 20일 드러났다. 이 회사의 후지와라 세이이치(藤原誠一) 사장은 지난

10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5년 정도 전부터 죄의식이 있긴 했지만 이미 이전부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이라 도무지 (위조를) 그만 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나고야 특산 닭고기인 '나고야 고친'에 다른 지역 닭고기를 20% 정도 섞어 팔다 적발됐고, 돼지고기를 쇠고기로 속여 팔아 오던 업체의 사장도 24일 구속됐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적발된 업체들의 공통 점은 가족경영을 오래 계속해 와 자체적인 자정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적발 업체가 늘고 있는 것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식품 110번'이라고 하는 식품 안전 관련 고발 전화를 설치한 뒤 올 6~9월에만 1,241건의 고발이 들어오는 등 소비자와 식품회사 내부 종업원의 문제의식이 고조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 중앙일보 = 도쿄

프랑스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수위 완화

프랑스 농림부는 지난 10월 4일 야생조류에



서 지난 2개월간 H5N1 Virus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수위를 High에서 낮은 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유럽최대의 가금 생산국이며 지난 7월 프랑스 북동부지역의 야생백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high' 경계경보를 발효한 바 있다.

- 로이터

중국

20년간 닭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남자



최근 중국에서 유별난 '동물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광둥(廣東)성 샤오관(韶關)시에 사는 61세의 노인 우칭싱(吳慶興)씨는 23년

간 수탉, 거위, 개, 까치 등 여러 동물을 친구 삼아 함께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친구는 그가 '친린'(親人·관계가 깊거나 다정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라 부르는 수탉 한 마리.

이 수탉은 우씨가 일을 할 때에도 머리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며 밥을 먹을 때에나 잠을 잘 때에도 그의 머리맡에서 떠나지 않는다.

고향을 떠나 홀로 살기 시작하면서 동물들을 데려다 키웠다는 그는 약 20년간 10여 마리의

수탉을 골라 특수한 훈련을 시켜왔다.

가장 아끼는 수탉은 머리위에 앉혀 항상 자신과 함께 하도록 훈련시켰고 그 외에 닭들에게는 우씨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습시켰다.

훈련 결과 닭들은 우씨의 간단한 지시를 모두 알아들을 뿐 아니라 위병처럼 문 밖에서 집을 지키는 등 영리한 모습을 보였다.

닭을 항상 머리에 올리고 다니는 탓에 주민들로부터 '수탉왕'(公鷄王)이라 불리우는 그는 "한번도 가족이 없어 외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며 "식구가 많아 언제나 행복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 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

뉴멕시코주 조류인플루엔자 모니터링 조사

뉴멕시코주의 관계 당국은 가금 및 야생조류에서 H5N1형을 포함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아직까지는 서부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강화된 예찰 조사 결과 여러 주의 야생조류에서 사람에게는 위험이 없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멕시코의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뉴멕시코에는 가금 시장이 없고, 가금에서의 발생은 없었다.

- Tribune

스위스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확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장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겨울철을 맞이해 스위스는 제너바의 Neuchatel 호수 및 다른 수로지역의 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10월 중순부터 주요 호수 1km 주변의 야생조류에 대한 바이러스 예찰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달에 승인된 연방법에 따라 닭, 칠면조 및 다른 가금은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실내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 로이터

EU

캐나다 가금·가금육 수출금지 조치

EU 위원회는 캐나다 Saskatchewan 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가금, 가금육과 가금육 부산물의 수입금지 조치했다고 지난 10월 3일 밝혔다.

- 로이터

필리핀

캐나다 조류 수입금지 조치

캐나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

됨에 따라 필리핀은 캐나다산 가금 및 조류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을 금지했다.

캐나다 수의국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 Saskatchewan 지방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7N3형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동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금에서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 로이터

영국

모의실험 결과 농장에서 AI 확산 가능성 있어

영국의 과학자는 통제조치가 농장간의 AI의 다량 확산을 예방하겠지만, 여전히 바이러스가 새어 나갈 주요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금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해 H5N1의 잠재적인 충격을 계산하기 위해 모의 실험을 했다.

현재의 통제 전략으로 약 73%는 감염이 확산되지 않겠지만, 27%의 감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로이터

삶을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은
날마다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일이다.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열 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백 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삶을 산 것이다.

- 장영희, '문학의 숲을 거닐다' 중에서